

선거구 획정에 찢기고 인구 불균형 갈수록 심각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시급

민의 아닌 정치적 이해따라 조정
동구, 4년마다 홍역 이제 그만
총선 끝...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4·13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광주지역 자치구간 경계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지역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를 위해 동구와 남구 일부 행정동이 합쳐지는 '기형적'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에 따라 향후 4년 뒤 총선을 감안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23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선거구 조정이 이뤄진 광주 동구와 남구를 중심으로 구간 경계조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동구를 놓고 4년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획정 논란에 총지부를 찍기 위해 구간 경계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9대 총선 당시 광주지역 국회의원 8석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 하한선을 밑도는 동구 선거구가 남구의 양림동과 방림 1·2동, 사직동, 백운1·2동 등 6개동을 새로 편입해 '동남을 선거구'가 됐다. 편입된 남구의 인구는 5만5000여명이었다.

북구의 경우도 북구를 선거구였던 오치1·2동과 임동이 북구갑에 편입됐다. 그나마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면서 이 지역 유권자들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자세히 모르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 8984명, 상한선은 27만 7966명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동구가 인구 10만 4000명으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광주 김성환 동구청장과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동구와 남구 지역민들은 총선이 끝난 만큼 하루빨리 구간 경계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제20대 총선이 끝난 만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아닌 주민편의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감안한 구간 경계조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광주시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서두르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획정이 이뤄졌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정장은 이어 "남구와 동구는 태생적으로 살아온 뿌리가 다르고, 역사적 출발점조차 생소한다. 이를 합치려고 하니 지역사회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면서 "애초 동구에서 분리됐고, 현재 45만명의 인구를 광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북구와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자치구별 인구는 동구가 9만 9883명, 서구는 30만 6717명, 남구 22만 2741명, 북구 45만 749명, 광산구 41만 557명이다. 동구는 북구나 광산구와 비교해 4분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자치구간 불균형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 의석 수 유지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라도 구간 경계조정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가 오는 30일 시작됨에 따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구간 경계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직까지 구간 경계조정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주길 기다리는 눈치다.

경계조정 과정에서 일정부분 인구를 내줘야 하는 자치구의 입장과 선거구 획정에 따른 손익 계산, 지역 정치세력간 이해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1년 한 차례 구간 경계조정을 했다. 해당 자치구와 경계 조정으로 자치구가 변경될 주민들의 견수렴(여론조사), 각 구의회와 시의회 의견, 행정안전부와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실력 광주' 수능 최상위권 유지

2016 표준점수 전국 2위

학생 적은 제주 빼면 1위

광주 고등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제 수능 뿐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중을 높여거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변화된 대학별 입시전형을 감안해 차별화된 진학 지도 방안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광주 2016 수능 성적

표준점수	102.4	2위
국어A	101.4	4위
국어B	101.9	1위
수학A	102.8	2위
수학B	104.4	2위
영어	101.5	3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4일 2016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수험생의 학력 수준을 보여주는 표준점수 평균이 102.4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제주(103.4점)가 차지했지만 수능 응시생이 5409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광주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의 경우 55개 학교 1만 6563명의 평균 표준점수는 국어 A형 101.4점(전국 4위), 국어 B형 101.9점(1위), 수학 A형 102.8점(2위), 수학 B형 104.4점(2위), 영어 101.5점(3위)으로 조사됐다.

국어 B형은 전년도(2위)보다 상승한 반면, 국어 A형 표준점수는 전년도(3위)보다 다소 하락했다.

광주 학생들 중 최상위권인 영역별 1

등급 비율은 국어 A(3.9%) 4위, 국어 B(5.0%) 3위, 수학 A(4.7%) 3위, 수학 B(5.7%) 5위, 영어(4.4%) 3위였다.

서울 주요대학 진학이 가능한 1·2등급을 합한 비율도 국어 A(11.7%) 3위, 국어B(11.6%) 3위, 수학A(12.2%) 3위, 수학B(16.1%) 3위, 영어(12.2%) 2위를 각각 기록했다.

전남지역 수험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 A형(96점), 국어 B형(97.1점), 수학 A형(97.3점), 수학 B형(91.1점), 영어(95.2점) 등으로 전년도보다 떨어졌다.

광주·전남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 확대 등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맞춰 수시 상담 프로그램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한편, 전문상담원을 활용한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봉하마을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인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생대문화공원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김중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맨 왼쪽은 정부 대표로 참석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 정 대표와 현 수석은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여야 정치인 대거 참석...정신 기려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서거 7주기인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모행사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렸다.

〈관련기사 3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추도식에 함께했다. 협치와 화합의 정신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 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선인들이 봉하마을에 총집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적통'임을 강조, 지지층을 한층 더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더민주 원내부대표들은 소속 의원 및 당선인들에게 직접 참석을 독려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 당 소속 의원 및 당선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난 선거에서 부산경남(PK) 지역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국민의당으로서는 지역민심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끌어안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서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추도식에 참석했다. 애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려고 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조화는 일절 사양한다는 뜻을 전함에 따라 보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정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ℓ (도심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40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